

약용작물학회 '98추계학술발표회 기원식물 정립필요성 제기

한국약용작물학회는 10월 30일 농진청 작물시험장 대강당에서 '98년도 임시총회 및 추계 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박상일 회장(충북대학교 농과대 교수)은 "약용작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제간의 약용식물 교역규모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생약을 이용한 제품개발로 새로운 수요창출과 국내 생산기반조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또 정부가 추진중인 한약정책과 관련 "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할지 모르나 그것을 이유로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 '우리나라 자원식물의 현황'에 대해 특강을 맡은 강병화 교수(고려대 식량자원학과)는 "한방에서 인진으로 사용되는 기원식물은 사철썩인데 현재 국내에서 더위지기를 인진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정확한 기원식물의 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외래종인 미국돼지풀이 국내에 급속도로 퍼져 군락을 이뤄가고 있다"며 이대로 번식될 경우 생태계 파괴가 문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박상표사무관은 '국



▲10월30일 농진청작물시험장에서 열린 약용작물학회 임시총회및 추계학술발표회.

내농업과 관련된 한의약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기도 했는데 한약재 규격화사업 진행 현황과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부의 한약정책을 소개했다. 이날 학술발표회에는 약 2백여명의 약용작물학회 회원들이 참석성황을 이뤘다.

“한약비닐팩 인체에 무해” 식약청, 인체에 해로운 향산화제 미검출

한약 비닐팩의 성분조사 결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약청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성재 의원이 질의한 한약조제 판매시 한약액을 넣는 비닐팩에 대한 성분분석검사 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닐팩에서 인체에 유해한 향산화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또 한약액을 담은 비닐팩은 별도의 용기로 제조된

것이 아니고 식품용기로 제조된 것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비닐팩은 대부분 PET/PP, PET/LLDPE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면서 이들 비닐팩에 대한 성분

제천의 '약초향 거리' 작약 목단 꽃길 조성, 특산물 홍보효과

제천시는 작약·천공·복단 등 약초를 소재로 도로변에 화단을 조성, 약초향 거리만들기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 5월 1차산업으로 제천경찰서 앞 하소천 도로변 3백m에 작약꽃길을 시 진입로인 신동 4차선 도로변 4백m에 산수유 나무를 비롯해 작약·목단·도라지 등 약초를 심어 미니가로공원을 조성했다.

특히 약초로 조성된 가로공원의 경우 인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자연학습장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천을 찾는 관광객들로 부터도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제천을 약초의 본고장으로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시내 주요도로에 약초향 꽃가로공원, 약초향 가로수, 약초 꽃길을 확대 조성하는데 4천여만원의 예산을

'누에 동충하초'가 식품 원료로 인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누에 동충하초에 대한 안전성과독성실험결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판명돼 최근 식품공전을 개정,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동식물에서

한 가공식품 제조는 불가능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식품원료로 인정된 동충하초는 지금까지 알려진 3백여품목중 농촌진흥청이 누에를 인공배양하는 기술로 대량 생산에 성공한 누에 동충

'누에동충하초' 식품원료 인정 차·음료·가공식품등 상품화 가능

누에 동충하초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누에 동충하초를 이용한 차, 술, 음료, 일반가공식품등 다양한 제품화가 가능해져 잠사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그동안 식품공전에 동충하초는 종류에 관계없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이를 사용

하초 한 품종이며 나머지 품종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농림부는 보건복지부에 누에 동충하초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으며 식약청은 한국화학연구소 안전성연구센터에 의뢰해 누에 동충하초에 대한 안전성과 독성 실험을 했었다.

검사는 97년도 조사 연구 사업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비닐팩에 물을 넣어 96도에서 30분 가열한 다음 물로 이행된 증발 잔류물을 측정한 결과 기준 규격에 적합했으며, 향산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 했다.

에서도 자라며 물(수분)에 대한 욕구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개량된 이 나무의 특징"이라고 전했다.

이 통신은 이어 "큰개암 나무는 4~8m의 높이로 자라며 8~12대씩 포기를 이루고 열매는 9월말 내지 10월초 사이에 수확한다"면서 "개암속살은 장수식료품과 식료가공공업의 원료로 널리 쓰이며 영양가는 알곡의 2배, 돼지고기의 1.5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큰개암나무 열매의 속살은 동맥경화·신장염·고혈압·화장독 제거 등의 병치료에 좋으며 잎은 집집승 먹이, 풀감원료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왕가시오갈피 신종 최초 발견, 신약자원 기대

일반 오갈피보다 강장, 신경통에 즉효를 발휘하는 평안도 야생 왕가시오갈피의 신종이 남부지방에서도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희대약대 육창수 교수는 경남 사천시 인근 산악 지대에서 각각 50년, 65년 생으로 추정되는 왕가시오갈피 두그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육창수 교수는 "이번에 발견한 왕가시오갈피 신종은 저지대에 자생하므로 재배가 가능하다"면서 "이를 응용한 신자원 생약 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큰개암나무 북한풍토맞게 개량

북한은 최근 식료품 및 가공품의 원료로 쓸수 있는 큰개암나무를 북한지역의 풍토에 알맞은 품종으로 개량하는데 성공했다고 중앙관영통신이 최초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조선의 식물학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자라는 큰개암나무를 조선의 기후풍토에 적응시켰다"면서 "비교적 척박한 땅

한약재 품질관리 토론회 '실효성 없다' 판단, 보류

대한한의사협회등 한방 관련 5개단체가 이달중에 개최기로 했던「한약재 품질관리 향상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한방관련 5개단체는 최근 한약재 중금속 및 표백제 검출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체 한방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아래 분위기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던 것.

그러나 당초 10월중 열기로 했던 세미나가 11월로 연기되는데 이어 최근 열린

실무자 회의에서는 무기한 연기로 결정됐다.

이는 현재 한방관련단체들이 모여 「한약재 품질관리 향상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홍보효과가 미약해 별다른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오히려 중금속등 한약재 품질관리건을 선불리 다루었다가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 아래 토론회 개최를 무기한 유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